울둥보살 불둥거사 <25>

구성 : 김흥인

소를 훔친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마을 사람들이 남의 소를 훔쳐 나눠 먹었다. 소 주인이 흔적을 따라 찾아와 사람들에게 "너는 이 마을에 있지 않느냐, 소를 훔치지 않았는가?"를 물었으나 모두 물음에 거짓을 답했다. "비록 마을과 나무가 없다 해도, 어찌 천하에 동쪽과 한낮이 없겠는가, 네 거짓말을 믿을 수 없다. 너는 소를 훔쳐 먹지 않았는가?"하고 묻자 "사실은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계율을 깨뜨린 사람도 그와 같다. 자기 죄를 덮어 드러내지 않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면 하늘의 선신(善神)들이 하늘눈(天眼)으로 보기 때문에 덮어둘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소를 훔쳐먹은 사람이 끝내 속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무산에서 사리를 얻다
무산사리(鄮山舍利)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무산사리(鄮山舍利) 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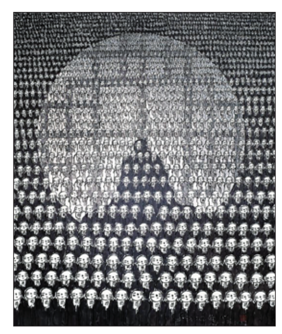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혜달 선사가 무현 안석산 땅속에서 출현한 보탑을 통해 사리를 얻는 장면을 묘사한다. 절강성 영파의 아육왕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도량이다. 정골사리가 봉안된 사리보탑은 아육왕사의 창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서기 281년 혜달 스님이 꿈속에서 도인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해 3일 기도를 올렸더니 5층 4각의 사리보탑이 솟아올라 절을 지었다. 처음에는 사리탑만 세운 작은 사찰이었는데 양무제(梁武帝)가 아육왕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후 대찰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아육왕은 불법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혜달 선사가 무현(鄮縣) 오석산(烏石山)에 이르러, 늦은 밤 땅 밑에서 종소리를 듣고 사흘이 지나자 홀연히 보탑이 솟아올랐다. 이 신령한 탑의 모습은 푸른색을 띠며 돌과 비슷했으나 돌이 아니었고, 높이는 한 자 네 치, 너비는 일곱 치였으며 5층의 노반이 있고 4주천이 완전했다. 그 가운데 보배 경쇠가 매달려 있고, 부처님 사리가 봉안돼 있었다. 탑신 위에 에워싸고 있는 것은 모두 여러 부처·보살·성승·금강 호법 제신 등의 상이었으며, 극히 미세한 모습이 눈을 깜박이며 눈동자를 한 곳에 쏟아야 백천의 상이 보였다. 그 상에는 얼굴과 눈, 손발이 모두 구비돼 신공성적(神功聖迹)이라 할 만했으며 사람의 지혜로 미칠 작품이 아니었다. 나타나기를 구하는 모든 이들도 사리가 탑 안에 출연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본문을 통해 불교의 뿌리 깊은 사리신앙 면모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혜달 선사가 얻은 부처님 정골사리로 아육왕사가 창건됐음을 알 수 있다. 아육왕사는 중국 선종 5산의 하나로 발전했으며, 대혜 선사가 주지로 주석하며 선풍을 드날린 도량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몸의 천하

가부좌를 풀고 문을 연다.
문을 닫고 가부좌를 튼다.

문밖 세상은 참으로 평온한데
문안 세상은 피빛 고독이다.

아, 몸의 천하여
나는
세상 어디에도 갈곳이 없어
내 몸의 천하를 방랑 하노라.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한국불교조계종
입종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전통불교의식 수강생모집
기본과정
사물 다루는 법
각단예불
각단 각청 불공의식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관욕시식
천수바라무 · 오공양작법무
초 급 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4시
중·고급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
수 강 신 청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영남의식을 기준으로함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범음범패 홍보원
홍은사 주지 성 각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전화 : (051)243-3165 H·P : 011-887-8600